

『大韓獨立血戰記』의 구성과 특징

박 철 민*

목 차

- I. 서론
- II. 『大韓獨立血戰記』의 서지사향
- III. 『大韓獨立血戰記』의 편찬 목적
- IV. 『大韓獨立血戰記』의 구성과 특징
- V. 결론
- 부록 I. 『대한독립혈전기』 본문의 구성 세부 내용
- 부록 II. 『대한독립혈전기』에 수록된 독립선언서
번역 전문

국문초록 | 본고에서 살펴본 『大韓獨立血戰記』는 일제강점기 미주 한인의 발행물 중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쓰인 최초의 문헌이다. 해당 문헌은 국내외에 소장처가 확인되며, 이승만을 중심으로 세계 각지에서 수합한 한국 독립운동 관련 기록이 한글로 번역되어 일정한 체계로 분류제시되어 있다. 『대한독립혈전기』의 번역문은 국한문혼용 및 영어의 원문을 번역한 것인데, 원문의 특성과 독자의 이해를 감안한 번역이 이루어진 것이다. 해당 문헌은 당시 재정상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독립을 위해 편찬된 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차후 해외 한국인들이 발행한 문헌과 독립운동의 연계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핵심어 | 독립운동, 해외 한인, 대한민국, 김영우, 한인기독학원, 태평양잡지사,

* 朴哲珉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 pcm9201@naver.com

투고일: 2024. 4. 8. 심사완료일: 2024. 6. 25. 게재확정일: 2024. 6. 27.

DOI URL: <http://dx.doi.org/10.17792/kcs.2024.46..425>

하와이.

I. 서론

한국의 독립운동은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 활발히 전개되었다. 국외에서 수행된 독립운동 중 하나의 축은 미주 지역 韓人 사회의 독립운동을 손꼽을 수 있다. 미주 지역에서는 다양한 외교 및 독립자금 마련이 이루어졌으며, 大韓人國民會 등 여러 독립운동단체가 활동하였다. 하와이도 미주지역의 하나로, 新民會, 合成協會 등이 활동하였으며, 뒤에는 대한인국민회 하와이 지방총회를 중심으로 활동이 전개되었다.

하와이 지역 독립운동에 대해서는 독립운동가 개인을 중심으로 한 연구¹⁾, 특정 단체 활동 중심의 연구²⁾, 지정학적 측면에서의 연구³⁾, 하와이에 이주한 한인이 하와이 소재 백인 사회에 끼친 영향 연구⁴⁾ 등 다양한 연구가 전개되었

-
- 1) 이종근, 「민족계몽과 독립운동의 선구자 근당 임기반 재조명」, 『도산학연구』 7, 도산학회, 2001; 홍운정, 「盧伯麟의 美國에서의 獨立運動(1916-1921)」, 『백산학보』 70, 백산학회, 2004; 황민호, 「박동완의 국내민족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3,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연구소, 2009; 이명화, 「재미 실업가 김종립의 생애와 독립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3,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연구소, 2012; 정을경, 「독립운동가 고석주의 독립활동」, 『충청학과 충청문학』,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19; 김명섭·박재원, 「제1차 세계대전 전후 하와이 대한인 독립운동: 이승만과 박용만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61-4, 한국국제정치학회, 2021; 조규태, 「하와이 이주 한인 정원명의 민족적 활동과 면모(1904~1942)」, 『승실사학』 48, 승실사학회, 2022; 조규태, 「하와이 이주민 안원규의 사회·경제적 삶과 민족적 활동(1903-1947)」,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15,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연구소, 2023 등.
 - 2) 김도형, 「하와이 대조선독립단의 조직과 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7,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연구소, 2010; 조규태, 「대조선국민군단의 조직과 활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09,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연구소, 2021 등.
 - 3) 박재원·김명섭, 「하와이 대한인 독립운동기지 형성의 정치학, 1903~1909」, 『한국정치연구』 31-1,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22.
 - 4) Brandon Palmer, 「하와이의 한인과 미국인 간의 관계(1903~1945)」, 『한국독립운동

다. 그러나 이처럼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진 하와이의 독립운동 관련 연구 중 현재까지 하와이에서 발행된 문헌을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하와이에서 발행된 문헌을 다룬 연구는 김정숙(2002)⁵⁾를 들 수 있다. 해당 연구는 일제강점기 일제에 의해 탄압받던 국내 출판계와 달리 해외 한인들은 일본의 범죄 고발이나 한글 사용이 자유로운 편이라는 점에서 해외 한인들이 발간한 출판물에 주목해야 하나, 아직 발간 배경이나 국내외에 끼친 영향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일제강점기 미주지역 한인에 의해 발간된 출판물을 정리한 바 있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미주 지역 한인의 출판물은 1904년 하와이에서 발행된 「신조신문」이 최초이며, 미주 지역 한인들의 생활 반경 확대에 따라 미국 전역으로 점차 확산되었다. 특히 1910년대에 들어서면 미주지역에서 한인들의 발간물이 단행본으로 발간되는 변화가 확인된다. 1910년대 미주지역 한인들이 발간한 단행본은 김정숙(2002: 183~4)에서 10건으로 파악되는데, 이 중 4건이 하와이에서 발행된 점을 보아 당시 하와이에서 활발한 출판 활동이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 다루는 『대한독립혈전기』는 김정숙(2002)에서도 언급되지 못하였다. 『대한독립혈전기』는 현재 국내의 문헌을 살펴본 바, 원문의 轉寫와 解題⁶⁾가 진행되었다. 특히 해제를 통해 3·1운동 이후 1919년 8월까지 수집된 기록의 원문을 살펴볼 수 있으며, 여타 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는 중요 기록이 포함되어 있어 가치가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해당 문헌은 3·1운동 직후 해외 한인들이 독립운동에 대해 어디까지 파악하고 있었는지 살펴볼 단서를 제공하나, 국내에서는 해당 문헌에 대한 본격

사연구』 244,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연구소, 2005.

5) 김정숙, 「민족 수난기 미주지역 한인 출판에 관한 시론적 연구」, 『출판연구』 14, 한국출판연구소, 2002.

6)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자료-臨政篇 II』, 국사편찬위원회, 1971;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자료-臨政篇 IV』, 국사편찬위원회, 1974.

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⁷⁾ 이에 본고에서는 『대한독립혈전기』의 서지사항을 비롯하여 내용적 특성을 아울러 소개하고자 한다.

Ⅱ. 『大韓獨立血戰記』의 서지사항

『大韓獨立血戰記』의 내용 및 구성을 살펴보기에 앞서, 현전본의 소장처와 간행 배경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까지 『대한독립혈전기』는 미국 하와이 대학과 컬럼비아대학 등 1~2질 정도만이 전하는 희귀본으로 알려져 있다.⁸⁾ 그렇다면 한국에는 해당 문헌이 전하지 않는 것일까? 해당 문헌이 한국에 전하지 않는다면 독립운동 연구에서 『대한독립혈전기』를 참조할 때, 국사편찬위원회(1974)에 전사된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국내에 접근 가능한 원문이 확인된다면, 차후 관련 연구자들이 원전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할 환경이 조성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대한독립혈전기』의 판본과 국내외 소장처를 조사하였다.

필자의 조사에 따르면, 『대한독립혈전기』의 판본은 1919년 하와이 호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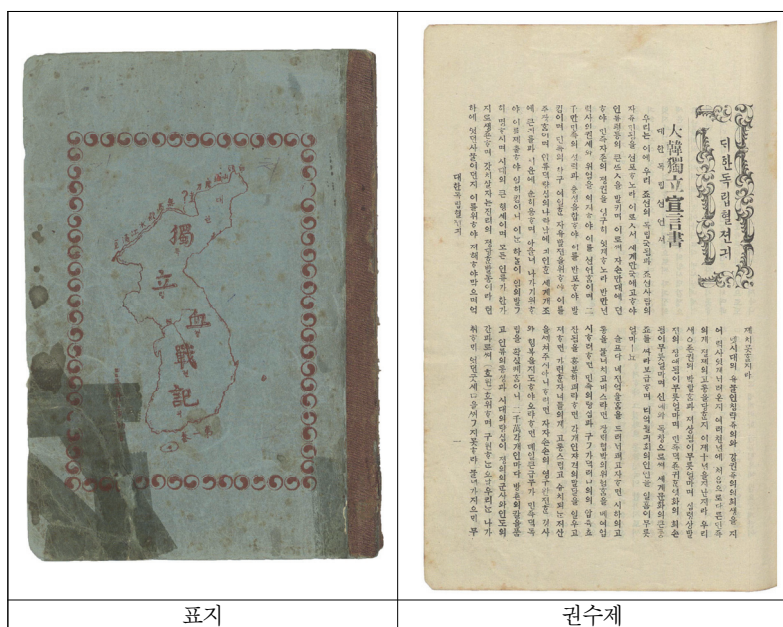
7) 전사 및 해제 외에 『한국독립혈전기』를 거론한 연구로는 조민경, 「하와이체류시기 이승만의 교육구국활동」,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23쪽; 최기영, 「『태평양잡지』, 『태평양잡지1』, 국가보훈처, 2013, 17쪽이 있다. 조민경(2013)에서는 한인기독학원 내 출판사에서 해당 문헌을 출판하였으며, 3·1운동을 계기로 각지 독립선언문 및 독립활동 등이 소상히 소개되어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최기영(2013)은 1919년 태평양잡지사에서 간행한 문헌으로,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집에 관한 자료집이라는 내용만 언급하였다 그러나 그 내용에 대하여 심도있게 살펴보는 못하였다.

8)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대한독립혈전기」 개설: 자료집은 현재 희귀본이 되어 미국 하와이 대학 도서관 및 콜롬비아 [필자 주: 컬럼비아의 오기] 대학 극동 도서관에 한 두질 소장되어 있다.; 국사편찬위원회(1974: 458): 大韓獨立血戰記는 一九一九年八月一五일에 美洲 호놀룰루의 太平洋雜誌社에서 간행한 三一運動과 臨時政府成立에 관한 자료집이다. 그러나 지금은 稀貴本이 되어 美國 하와이大學圖書館 등에 한 두帙만이 전래되어 오고 있다.

를루 한인기독교학원에서 발행된 초판본이 유일하다. 초판본은 新鉛活字로 인출된 것이며, 현재 국내 2건, 국외 3건으로 전체 5건이 확인된다. 국내 소장본은 국회도서관(청구기호: 稀 951.61 ㄱ769ㄷ), 독립기념관(자료번호: 3-008965-000)에 각 1건씩 소장되어 있으며, 국외에는 하와이대학, 시카고 대학, 컬럼비아대학에 각 1건씩 소장되어 있다. 즉, 현재 한국과 미주 지역에 소장본이 전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국사편찬위원회에는 개인 소장본을 저본으로 복사한 자료가 소장되어 있다.⁹⁾

필자는 5건의 초판본 중 시카고대학 소장본을 제외한 나머지 소장본의 이미지를 확보하여 조사를 수행하였다. 초판본의 서지사항은 필자가 확인한 원전의 이미지를 기준으로 서술하도록 한다. 이미지 확인이 가능한 4건의 초판본 중 컬럼비아대학 소장본을 제외한 3건은 녹색 바탕에 한국의 지도와 한자 및 한글을 併記한 表題가 인쇄된 표지로 장정되어 있다. 컬럼비아대학 소장본은 표지가 개장되어 검정색 바탕의 표지로 파악된다. 컬럼비아대학 소장본을 제외한 3건은 표제와 지도 등이 태극 무늬로 둘러져 있다. 표제 하단에는 ‘第一卷’이라는 문구가 있어 이후 제2권 등을 발간할 예정이었으리라 여겨지나 권수제에서도 권차가 매겨지지 않았으며, 제2권의 존재도 확인되지 않아, 제2권의 실제 발행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리라 여겨진다.

9) 해당 문헌은 목록에서 1919년 발간으로 기술되어 있으나, 필자가 실사한 바, 원본을 복사한 자료임을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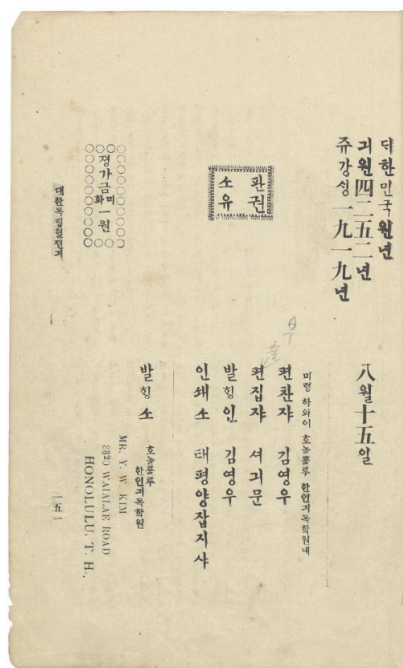
[그림 1] 『대한독립혈전기』의 표지와 권수제¹⁰⁾

책의 크기는 세로 23.1~24.0cm, 가로 15.5~16.5cm이며, 邊欄은 없다. 版心에는 版心題와 張次가 나타난다. 표제는 ‘대한獨立獨立血戰前記’이며, 판심제는 ‘대한독립혈전기’이다(그림 1). 이에 반해 目錄題와 卷首題는 ‘대한독립혈전기’로 아래아 표기나 한자 병행 등에서 차이가 있다. 界線이 없으며, 每面마다 20行 52字를 상하단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주석의 경우 ‘()’ 표기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본문이 끝나면 판권지와 정오표가 확인된다. 이 중 판권지를 통해 해당 문헌이 1919년 8월 15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 소재한 한인기독학원에서

10) 본고에서 인용하는 『대한독립혈전기』의 이미지는 모두 국회도서관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원문 이미지를 인용한 것이다.

발행하였으며, 편찬자는 김영우, 편집자는 서기영, 인쇄처는 태평양잡지사임을 알 수 있다. 『대한독립혈전기』의 판권지에서는 연도 표기를 3종으로 제시하였는데, 첫째는 ‘대한민국원년’, 둘째는 ‘기원四二五二년’, 셋째는 ‘주강싱一九一九년’이다. 첫째로 제시된 ‘대한민국’ 국호는 1919년 4월 중국 상하이에서 공포된 「대한민국 임시헌장」에서부터 시작된 것인데, 『대한독립혈전기』가 발행된 1919년 8월에 이미 하와이에서 ‘대한민국’ 국호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제시된 ‘기원四二五二년’은 檀紀로, 1917년 하와이에서 발행된 『한국통사』에서도 확인된다. 세 번째로 제시된 ‘주강싱一九一九년’은 서력을 표기한 것이다(그림 2).



[그림 2] 『대한독립혈전기』의 판권지

판권지에 제시된 연도 표기 중 ‘대한민국’ 국호는 경술국치 이후 한국인이 만든 연도 계산의 새로운 기준점이다. 미국에서 발행되었던 「新韓國報」와 「國民報」 등의 신문 및 『韓國痛史』와 같은 문헌의 발간 일자를 살펴보면 경술국치 이전에는 ‘大韓隆熙’로 연호를 표기하던 것이 경술국치 이후 ‘大韓紀元’, ‘大韓建國’, ‘괴원’ 등의 표현 또는 서력 표기 등으로 변경¹¹⁾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경술국치로 인해 한국 고유의 연도 계산 기준점이 무너져 혼란을 빚게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한독립혈전기』에서 보이는 ‘대한민국’ 국호는 이러한 연도 계산의 혼란을 극복하고 한국인 스스로 새로운 연도 계산의 기준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며, 불과 수개월 사이 해외 한인들에게 적용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신한민보」에서는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1919년 9월 18일부터 정착되었으며, 1920년 대한인국민회 북미지방총회에서 발행한 『公文式』¹²⁾에서도 확인된다. 이를 통해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년이 채되지 않은 시점에서 일반 대중에게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정착되었으며, 늦어도 1920년부터는 미주 한인사회에 소재한 단체에서 공문서의 연도 계산 기준점으로 대한민국 국호가 정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필자가 확인하였을 때, 『대한독립혈전기』는 미주지역에서 발행한 문헌 중 대한민국 국호가 적용된 첫 문헌으로

11) 융희 연호는 1910년 8월 9일 「신한국보」 발행일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같은 해 11월 29일에 발행된 「신한국보」에서는 ‘대한기원4243년’으로 발행연도를 표기하고 있다. 즉, 경술국치를 기준으로 연도 표기의 기준이 변경된 것이다. 이후 1913년 10월 15일 발행된 「국민보」에서는 ‘대한건국4246년’으로 발행연도를 표기하고 있어 ‘대한기원’과 ‘대한건국’은 ‘檀紀’의 다른 표현임을 알 수 있다. 반면, 1919년 이후 하와이에서 발행된 문헌에서는 ‘대한민국’, ‘민국’으로 대한민국의 국호가 사용되고 있으며, ‘괴원○○○○년’으로 단기를 구분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12) 해당 문헌은 대한인국민회 북미지방총회에서 각 지방회와 주고받는 공문서의 종류와 양식을 규정한 서식집으로, 고려대학교 도서관(청구기호: 해사 651.50953 1920)에 소장되어 있다. 대한민국 국호는 표지, 문서식에서 모두 확인된다.

확인된다. 이외에도 판권지를 통해 당시 해당 문헌의 가격이 미화 1원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 살펴본 『대한독립혈전기』의 서지사항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 『대한독립혈전기』의 서지사항

書名	간행 년도	서지사항	소장처
대한독립혈전기	1919년 (대한민국 원년)	1卷 1冊, 新鉛活字本, 無界, 20行52字, 註單行, 無魚尾; 23.1~24.0×15.5~16.5cm.	국내: 국회도서관, 독립기념관 국외: 미국 하와이대학, 컬럼비아대학, 시카고대학
주 기 사 항	版心題: 대한독립혈전기 目錄題: 대한독립혈전기 表題: 대한獨立血戰記 발행처: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한인기독교학원 *국사편찬위원회에 복사본 1부 전함.		

Ⅲ. 『大韓獨立血戰記』의 편찬 목적

2장에서 『대한독립혈전기』의 판권지를 통해 발행 주체는 하와이 한인기독교학원, 인쇄는 태평양잡지사에서 이루어졌으며, 김영우가 편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3장에서는 이들의 공통점과 편찬 목적이 무엇인지 등을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발행주체인 하와이 한인기독교학원을 살펴보자. 한인기독교학원은 1914년 하와이에 설립된 기독교계 민족학교이다. 이승만은 1913년 하와이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당시 친일발언으로 인해 논란이 있던 와드만 감리사를 대신하여 한인기독교학원의 운영권을 이양받게 된다. 이것이 바탕이 되어,

1914년에 한인들이 독자적으로 설립한 교육기관인 한인여학원을 설립하고, 1918년에는 남녀공학인 한인가독학원으로 개교한다.¹³⁾

인쇄를 수행한 태평양잡지사는 주지하다시피 이승만이 하와이에 도착한 뒤 발행한 『태평양잡지』를 인쇄하던 회사이다. 태평양잡지사의 설립 시기는 명확하지 않으나, 『태평양잡지』 제1호가 발간된 1913년 9월 1일 이전에 설립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해당 잡지는 한인감리교회에 있던 기존 인쇄 시설로 발행하다가, 1914년 2월호부터 일본에서 구입한 5호 활자로 인쇄를 시작하였다.¹⁴⁾ 이승만은 일찍부터 태평양잡지사의 사장이었던 바, 1913년 하와이에 이승만이 도착하였을 당시 태평양잡지사를 설립하였으리라 여겨진다. 태평양잡지사는 『태평양잡지』 외에도 이승만의 『독립정신』 등의 단행본을 간행하기도 하였다.

편찬자인 김영우는 하와이대학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 세부 이력을 살펴볼 수 있다.¹⁵⁾ 김영우(1895~1980)는 1895년 서울에서 태어나 20살인 1914년 하와이로 이주한 인물이다. 그는 한국기독학원의 교사, 교감 등을 역임하였으며 태평양잡지사의 주필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1920년에는 메사추세츠주 스프링필드대학(Springfield College)에 입학하였다. 1980년 하와이 오아후 섬에서 사망하였다고 하므로, 1914년 하와이 이주 이후 하와이에 터를 잡고 일생을 살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한자 이름은 金永雨, 金永遇, 金永佑 등으로 나타나는데,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42에 수록된 이승만과 安顯景(1881~?)의 편지를 보아 金永遇가 하와이에서 통용된 한자 이름임

13) 이상 한인가독학원의 설립 과정에 대해서는 박혜수, 「이승만과 하와이 감리교회와의 관계」, 『신학논단』 68,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2012, 101~106쪽; 조민경(2006: 17~23) 참조.

14) 이상 『태평양잡지』에 대해서는 최기영(2013) 참조.

15) 필자가 확인한 하와이대학 사이트는 <https://hilo.hawaii.edu>이다. 상세 주소는 다음과 같다. chrome-extension://efaidnbmnribpcajpcglclefindmkaj/http://hilo.hawaii.edu/documents/depts/english/kanoioaeale/Book1919/KimYoungWoBio--rev-CL.pdf

을 알 수 있다.

이승만 등의 편지를 참조하면 김영우는 1919년 당시 하와이총회의 재정을 담당한 총무로 활동하고 있었으며, 1923년에는 하와이 한인기독교학원 건물의 건축을 위한 모금 목적으로 학생방문단이 일제 치하 한국에 방문하게 되었을 때, 閔贊鎬(1877~1954)와 함께 부단장 자격으로 한국에 다녀왔다.¹⁶⁾ 이외에도 『태평양잡지』 주필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즉, 김영우는 『대한독립혈전기』가 편찬되던 전후시기 이승만 세력의 재정 등을 담당하던 주요 간부로 활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상 한인기독교학원, 태평양잡지사, 김영우를 보았을 때 공통적으로 이승만과 긴밀 내지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승만은 『대한독립혈전기』를 어떠한 목적 아래 편찬하였을까? 현재 그 취지를 살펴볼 수 있는 기록은 『대한독립혈전기』의 서문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 서문 중 주요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의 혁혁한 문명을 받아 미개한 지위를 겨우 벗어난 저 조그마한 섬의 아이들은 대륙으로 나올 양큼한 양심을 품고, 배은망덕한 의도로 임진년에 한국의 성지를 범하다가 [필자 주: 임진왜란] 욕심을 이루지 못한 후, 300여 년을 준비하여 갑오년에 그 야심을 성공하였다. 이때부터 한국은 독립을 잃었고, 2천만 우리 민족은 하늘로부터 받은 인권의 자유를 빼앗겼으며, 10년 전 [필자 주: 1910년 경술국치를 지칭한다] 에는 4천여 년을 내려오던 국혼까지 잃었다. (……) 주님의 뜻을 받아 한국의 독립을 선포하였으니, 하늘과 영령께서 우리를 도와 세운 이가 並進하매 국치를 설분하겠도다! 예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동서양에 있던 크고 작은 열국들이 천지가 순환하는 지리와 같이 하루아침, 하루저녁에 흥망승패함이 비일비재하나, 그 민족의 원기를 따라 망해가는 나라가 붙들어지기도 하고, 잃었던 국가를 되찾아 천만대의 누명을 벗는 아름다운 역사적 일도 많지마는,

16) 하와이학생방문단에 대해서는 최희영, 「1923년 하와이한인학생방문단의 인천 방문 주요 내용과 의의」, 『인천학연구』 36,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22 참조.

국가를 잃은 지 10년 안에 2천만 우리 민족이 혈혈단심으로 인도와 정의를 표준하고 한국인의 생존을 위해 저 어려운 원수의 사슬 안에서 3월 1일에 한국의 독립을 선포한 이후 지금까지 왜적의 날카로운 창검에 항거하여 육탄혈전 하는 것은 실로 만고 역사에 없던 일이다. (……) 우리는 이때 한국인이 되어 하늘로부터 받은 직분을 수행하려면 內地 [필자 주: 일제가 점령한 한국의 영토] 에서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며, 희생하는 동족을 위해 응급수단으로 물질과 재력을 보내야하겠고, 또한 혈전하는 소식을 들어 실지로 알고 행할 때 임의로 이 글을 쓰는 사람은 독립운동 시작 이후 동서양 신문과 잡지에 언론이나 내외지 전보통신을 날날이 참고하여 대한독립혈전기 제1권을 편집·역찬하였으니, 각 지방 동포와 각 학교 학생 분들은 교과서도 될만하고 후손들에게 깨우쳐줄만한 역사적 유전물을 구하시오. 애국하시는 동포는 빨리 알아보셔서 만주와 시베리아의 넓은 뜰에서 무기를 갖추고 임시정부의 군사 출동을 기다리는 동포들과 같이 어깨를 견고 백두산을 넘고 압록강을 건너 우리의 병마는 압록강 넓고 깊은 물을 마시어 마를 지경에 이르며, 웅장한 로키산은 없어지고 크고 넓은 태평양 바닷물이 다하더라도 조금도 실망하지 말고, 의주에서부터 부산에 이르기까지, 울릉도에서 장산곶까지 이순신의 지혜와 을지문덕의 용맹을 가지고 왜적과 몸을 던져 혈전을 벌여 몰아내어 같이 탄 배에 물이 들어오고, 같이 사는 집에 도적이 들어와 가족을 도륙하니 우리가 빨리 구해 영원한 독립을 완성할 기회를 만듭시다!¹⁷⁾

17) 『대한독립혈전기』 「서문」: 조선의 혁도한 문명을받아 미개한 디위를 겨우벗은 저 조고마한 섬 | 아히들은 대륙으로나올 앙큼한 야심을 품고 배은망덕의 쓰스로 임진년에 한구구의성디를범하다가 욕심을 일우지못한후 三百여년을 예비하여 갑오년에 그 야심을 성공하였으며 이제부터 한구구는 독립을일혔고 二千만 우리민족은 텃부호신 인권의자유를 사배앗겼으며 十년전에와서는四千여년 내려오던 구구혼신지 일혔다 (……) 주의쓰사을받아 한구구의독립을 선포하였스니 텃부신조호사 세운이병진한 구구치를 설분하겠도다 자고급급으로 동서반구에잇는 대소열구구들이 텃디의 순환지리와갓치 일조일석에 흥망승패흥이비일비적이나 그민족의 원기 짜라 망호여가는 나라를 붓들기도하며 일했던 구구가를 도로차져 천만대의 누명을 벗은 아름다운 역사상 사변도 만치만은 구구가를일흔지+년안에 二千만 우리민족이 혈단심으로 인도와 정의를 표준하고 한족의새존을 위하야 저 어려운 원수의사

해당 서문은 김영우의 自序이다. 서문을 살펴보면 첫 단락에서는 한국의 문명을 받았던 일본이 임진왜란을 비롯하여 수백년간 한국을 점령하기 위해 야욕을 보여왔으며, 결국 한국을 점령하게 되었음을 서술하고 있다. 이후 하느님과 신령들의 도움을 받아 세운 사람이 우리와 함께하니, 국가의 치욕을 설욕하겠다는 맹서와 고금의 역사에서 다양한 사건이 있었으나, 1919년 일어난 3·1운동과 같은 일은 처음 있는 일임을 지적하는 내용이 확인된다. 여기서 하느님과 신령들의 도움을 받아 세운 사람은 이승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후 서문에서는 동서양의 관련 정보를 참고하여 『대한독립혈전기』가 편찬되었음을 밝히고, 각 지방의 교과서나 후손들에게 물려줄만한 역사적 문헌임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말미에는 로키산이 없어지고, 태평양이 다하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만주와 시베리아 등지에 소재한 한민족이 힘을 합쳐 삼천리 강산의 독립 기회를 만들자고 성토했다.

슬안에서 三월一일에 한구가 독립을 선포한 이후 오늘날까지 왜적의 리로는 창점을 향거하야 육탄혈전홈은 실로 만고 고금력사에 업는 일이라 (……) 우리는 이제에 한인된 텃부호직분을 호려면 내디에서 신음고통하며 희세호는 동쪽을 위하야 응급슈단으로 물질과 지력도 보너야호겠고 사도호 혈전호는 소식을드러 실디로알고 힘호출에 임의로 이끌쓰는 사람은 독립운동시작이후 동서양신문잡지상 언론이느 내외디 텃보통신을 일일히 참고하야 대한독립혈전기 데—권을 편집역찬호였사오니 각디방동포와 각학교 학새호 제군들은 교과서도 뵈만호고 후손의게 채쳐줄만호 력사덕 류던물을 구호시오 애구호호시는 동포는 속히알아보시와 만주와 셔백리아 광활호 끝에서 무기를 갖추고 려시정부의 군사상 출동을기다리는 동포들과갓지 역개를 젓고 빅두산을넘으며 압록강으로건너 우리의 창점은 백두산 상양호호 갈나업서지며 우리의병마는 압록강 널고김혼물을마시어 말을디경에 널으며 웅장호 우락키산은 업서지고 크고널본 태평양물은 다호지라도 조금도 락심말고 의주셔부터 부산까지 울릉도에서 장산곶까지 리순무공의 모략과 을지공의 용맹을가지고 왜적과 육탄혈전호야 몰아내임으로 갓치탄배에 물이들어오고 갓치사는집에 도적이들어와 부모쳐자와 형제자미를 도륙하니 우리는 속히 구원호야 영원호 독립을완성호고회를 지읍세다

서문 중에는 31운동의 모습을 서술하며 ‘육탄혈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로 보아 서명의 ‘혈전’이 31운동 당시 한민족이 피를 흘리며 일제와 맞서는 내용에서 따온 것이라 여겨진다. 즉, 서명의 혈전은 독립운동을 의미한다. 그리고 해당 문헌을 각 지방의 교과서 내지 후손들에게 물려줄 기록물로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 해당 문헌이 31운동 이후 한국 독립을 목적으로 한민족의 여러 사람들에게 읽혀질 교과서와 민족적 기록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목적에서 편찬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서문 말미에 수록된 로키산이 없어지고 태평양이 다하더라도 독립 기회를 만들자는 표현은 漢高祖의 帶礪難忘 고사에서 泰山을 로키산으로, 黃河를 태평양으로 바꾸고, 국가가 잊지 않겠다는 내용을 국가를 잊지 말자는 내용으로 변용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상 서문을 보아 『대한독립혈전기』는 이승만을 주축으로 세계 각지에 소재한 한민족의 독립 의지를 일으키고 유지시키기 위한 목적 아래 편찬되었다고 여겨진다.

Ⅳ. 『大韓獨立血戰記』의 구성과 특징

지금까지 『대한독립혈전기』의 서지사항과 소장처, 편찬 배경 등 외적 요소를 살펴보았다면, 4장에서는 『대한독립혈전기』의 구성과 내용적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구성을 살펴보자. 『대한독립혈전기』는 크게 卷首와 본문, 판권지와 정오표로 구성되어 있다. 권수와 본문에는 14장의 사진이 수록되어 있으며, 본문은 10개 부, 43건의 자료가 수합되어 있다. 정오표에는 본문 중 40건의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은 내역이 제시되어 있다. 정오표가 별도로 있다는 것은, 본문이 인출된 이후 1차례 이상 교열을 보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내역을 정오표로 표기한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 즉 『대한독립혈전기』는 인출 이후~발행 이전 시기에 교열 과정을 거친 것이다.

『대한독립혈전기』의 쪽수를 살펴보면 사진이 수록된 면은 쪽수에 산정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수록된 사진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대한독립혈전기』에 수록된 사진의 구성

순 번	수록 위치	사진 제목
1	卷首	한국 지도
2	卷首	이승만 사진
3	卷首	3·1운동 당시 서울에서 독립선언을 선포하던 모습
4	본문 32~33쪽 사이	1919년 4월 12일 하와이에서 독립선언식 거행 모습
5	본문 32~33쪽 사이	한인기독교학원 유년군의 모습
6	본문 32~33쪽 사이	하와이 지방 총회관
7	본문 32~33쪽 사이	서울 서소문 안
8	본문 32~33쪽 사이	서울 독립관과 독립문
9	본문 48~49쪽 사이	3·1운동 당시 서울 주재 미국 영사관 앞
10	본문 76~77쪽 사이	3·1운동 당시 독립선언서를 읽는 여학생의 손을 자르는 일본군
11	본문 76~77쪽 사이	3·1운동에 참여한 사람이 일제에 의해 고문을 당한 모습
12	본문 104~105쪽 사이	폐점으로 시위하던 가게를 일본군이 강제로 여는 모습
13	본문 136~137쪽 사이	1919년 4월 14일 미국 필라델피아 미국독립관에 있는 조지 워싱턴의 의자에 앉은 이승만
14	본문 136~137쪽 사이	미국 워싱턴에 소재한 옛 한국 대사관

사진의 제목을 보면 국내외 한국 독립운동 관련 사진과 건물 등에 대한

사진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2). 이 중 한국 지도, 발행사인 태평양잡지사의 사장 이승만, 서울에서 독립선언을 하던 모습이 권수에 수록되어 있는데, 이는 독립 대상 국가, 발행 주체의 대표자, 3·1운동의 첫 모습 등 하와이 측에서 기릴만한 요소가 먼저 제시된 것이다.

본문에 제시된 사진은 하와이 독립운동 관련 사진, 서울의 사진, 3·1운동을 탄압하는 일본군과 피해를 입은 한국 사람의 사진, 미국 본토에 소재한 독립 관련 활동 및 건물 사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곧 하와이->서울->일제의 탄압 고발->미국의 순서로, 편찬자 나름의 기준에 의거하여 사진을 분류한 뒤, 수록한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그림 3).

 <p>경평 노후전일 야후위원유자 계통화평 캐포선선영독 서울서 해일—일三</p>	 <p>와성훈에서 한국의 위령을 다시 열치도</p> <p>구한국 대사관의 태극기</p>
3·1운동 당시 독립선언 모습	미국에 소재한 구한국 대사관 모습

[그림 3] 『대한독립혈전기』에 수록된 사진의 예

다음으로 『대한독립혈전기』의 본문을 살펴보자. 『대한독립혈전기』에는 임시의정원과 임시정부의 초기 활동 기록이나 대통령선언서, 한성정부 관련 기록이 수록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¹⁸⁾ 이외에도 『대한독립혈전기』에는 다양한 기록의 원문이 한글로 번역되어 있다. 이러한 『대한독립혈전기』의

18) 국사편찬위원회(1974) 참조.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구성과 출처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대한독립혈전기』의 본문 구성에 대한 간략한 요약은 다음과 같다.¹⁹⁾

[표 3] 『대한독립혈전기』 본문 구성 및 주요내용

순 서	첫 번째 절의 제목	주요 내용	수록 페이지	원문 발행 지역
1	대한독립선언서	3·1운동, 대한민국임시헌장, 2·8독립선언서, 대한국민의회 독립선언서 등의 번역문, 독립가, 서재필 박사 부인의 기도문, 1919년 3월 1~10일 독립운동 참여 인원과 체포자 및 사상자의 수	1~14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2	필라델피아총대표회	1919년 4월 개최된 한인총대표회의의 배경 및 경과, INDEPENDENCE FOR KOREA(한국의 독립)의 번역문	15~28	미국
3	국민대회취지서	한성정부 국민대회취지서 번역문	28~30	한국
4	독립군활동중심지	1919년 3월 1~5일 지역별 독립운동 참여 인원 수	30~31	
5	연보	한국, 중국, 미국, 일본, 프랑스 등지에서 전달된 소식의 번역문	32~50	한국, 중국, 일본, 프랑스, 미국
6	대한공화국청원서	1919년 파리강화회에 김규식이 제출한 한국독립청원서 영문의 번역문	51~59	
7	내지독립군활동소식	3·1운동 이후 수습된 한국 소식, 「독립신문」과 「한인신보」 등의 기사 번역문	76~106	한국, 일본, 러시아

19) 세부 내역은 ‘부록 1. 『대한독립혈전기』 본문의 구성 세부 내용’을 참조.

8	한국의독립운동	중국, 미국 등지에서 발간한 신문 기사와 미국인의 청원서, 잡지 기사의 번역문	107~129	중국, 미국
9	대통령의선언서	임시정부 관련 선언서, 법령 번역문과 명단	130~137	
10	합중국상원의원의 토론	1919년 7월 15일 미국 상원의회 회의록 중 한국 관련 내용의 번역문	137~150	미국

위 표를 살펴보면 『한국독립혈전기』는 세계 각지에서 수합된 한국 독립 관련 기록이 모인 것임을 알 수 있다. 수합된 원문의 출처를 살펴보면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프랑스, 미국 등 다양한 국가가 확인되며 이 중에서도 한국과 미국에서 수집된 자료가 주류를 이룬다(표 3).

내용은 각 장마다 특색을 지니는 것이 확인되는데, 제1장의 경우 독립선언서 내용과 정강 등이 수합되었으며, 제2장에는 미국 필라델피아의 한인 단체 활동과 한인 단체에서 발행한 ‘INDEPENDENCE FOR KOREA’의 내용, 제3장은 미국 및 한국의 한인 활동 요지, 제4장과 5장은 국내외 3·1운동 관련 소식, 제6장은 파리강화회의에 제출한 김규식의 한국독립청원서, 제7장은 한국의 소식과 한국 인근 지역 인물들이 보낸 편지, 제8장은 해외의 반응, 제9장은 임시정부의 입장과 구성원, 제10장은 미국 상원회의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각 장마다 주제를 분류하여 편찬자가 수합해두었음을 알 수 있다.

2장은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제1차 한인회의와 ‘INDEPENDENCE FOR KOREA’의 내용을 기반으로 구성된 것이다. 제1차 한인회의는 한인이 적은 미동부지역에 개최되는 등 많은 인원이 참여하기 어려운 여건에서도 약 1천여명이던 북미 거주 한인 중 100~150여 명이 참여하였기에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고 평가받는다.²⁰⁾ 개최 일자는 14일~16일인데, 해당 일자는 일요

20) 홍선표, 「徐載弼의 獨立運動(1919-1922)研究」, 『한국독립운동사연구』 7, 독립기념

일, 월요일, 화요일이기에 한인들이 휴일을 틈타 필라델피아로 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100여 명이나 되는 인원이 모인 것이다.

어느 모임이든, 첫 번째 모임은 의미가 남다르기 마련이다. 그러나 필자는 아직 제1차 한인회의가 한인의 수가 적었던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된 이유를 명확히 소개한 글은 보지 못하였다. 당시 한인이 적었던 필라델피아에서 제1차 한인회의가 개최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대한독립혈전기』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필라델피아는 미국 독립관이 있어 140여 년 전에 독립선언서를 여기서 처음 읽고, 자유의 종을 올린 곳이다. 그러므로 작년(필자주: 1918년) 유럽의 약소국들이 각각 이곳에서 수천명씩 모여 공회를 열고, 독립문을 낭독하였고, 그 뒤 그 사람들이 거의 다 독립을 얻었다. 그러한 까닭에 우리도 이곳을 택하여 남의 前例를 따라 국회라 한 것이다.²¹⁾

예문에서는 제1회 한인회의가 필라델피아에서 이루어진 이유가 명확히 파악된다. 당시 회의 장소가 필라델피아로 정해진 사유는 미국의 독립을 처음 알리는 장소였으며, 당시 유럽의 일부 국가가 필라델피아에서 독립문을 낭독한 뒤 대다수가 독립을 얻었기 때문이다. 특히 예문의 각주로 제시한 본문에서 ‘콩그레스(국회)라 하였다’라는 내용은 필라델피아의 미국 독립에서 시작된 회의의 명칭이 ‘The Continental Congress’이기 때문에 그 전례를 따라 ‘Congress’로 표기한 것이다. 이러한 대회의 경과와 내용 등을 『대한독립혈전기』에서 살펴볼 수 있다.

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3.

- 21) 『대한독립혈전기』 2장 「필라델피아총회표회」: 필라델피아성은 미국 독립관이잇서—백四+여년전에 독립선고문을 여긔서 처음일고자유종을 올린쳐소라 그럼으로 작년에 유럽 소약구들이 각각이곳에서 여러천명씩모혀 공회를 열고 독립문을랑독후후 그인중들이 거의 다 독립됨을 얻은지라 그런고로 우리도 이곳을택햏야 남의 전례를 짜라 콩그레스(국회)라 햏엿더라.

2장의 내용 중 대다수는 ‘INDEPENDENCE FOR KOREA’의 내용을 번역한 것이다. 해당 문헌은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한국통신부와 한국친우회가 공동으로 발간한 것인데, 한국통신부는 서재필이 한국문제에 대한 공정한 여론 조성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가 지원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한국독립에 대한 책자 발간과 선전활동 등의 활동 등을 수행한 기관이며, 한국친우회도 서재필의 건의로 필요성이 제기된 뒤, 서재필과 뜻을 같이 하는 외국인들이 힘을 합쳐 발기한 단체이다. 즉, 해당 문헌은 한국의 독립을 대외에 알리기 위해 영문으로 발간한 책자인 것이다. 『대한독립협전기』는 해당 문헌의 내용을 순한글로 번역하여 한국의 독립을 위해 대외에 선전하던 내용을 한인들이 읽도록 하였다.

『대한독립협전기』에 수록된 내용은 국한문혼용과 영문으로 구성된 원전을 순한글로 번역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특히 제1장은 여러 독립선언서를 수합하여, 순한글로 번역하였다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 이는 2·8운동, 3·1운동 등에서 선포된 독립선언서의 첫 번역문이다.²²⁾ 이 중 번역 사례로 3·1운동 독립선언서의 앞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원문: 吾等은 玆에 我朝鮮의 獨立國임과 朝鮮人의 自主民임을 宣言하노라
 此로써 世界萬邦에 告하야 人類平等의 大義를 克明하며 此로써 子孫
 萬代에 誥하야 民族自存의 正權을 永有케 하노라 半萬年歷史의 權威
 를 仗하야 此를 宣言함이며 二千萬民衆의 誠忠을 肅하야 此를 佈明함
 이며 民族의 恒久如一한 自由發展을 爲하야 此를 主張함이며 人類의
 良心의 發露에 基因한 世界改造의 大機運에 順應并進하기 爲하야
 此를 提起함이니 是 天의 明命이며 時代의 大勢 也 全人類共存同
 生權의 正當한 發動이라 天下何物이던지 此를 沮止抑制치 못할지니
 라 (……)

22) 『대한독립협전기』에 수록된 3·1운동 독립선언서의 전체 번역문은 지면 관계상 ‘부록 2. 『대한독립협전기』에 수록된 독립선언서 번역 전문’으로 제시하도록 한다.

번역: 우리는 이에 우리 조선의 독립국됨과 조선사람의 자주민됨을 선포하
 노라 이로써 세계만국에고하야 인류평등의 큰쓰사를 발키며 이로
 써 자손만대에 던하야 민족자존의 정권을 영구히 잇게하노라 반만
 년력사의권세와 위엄을 의지하야 이를 선언함이며 二千만민족의
 성력과 충성을함하야 이를 반포하야 발킴이며 민족의 항구 여일흔
 자유발전을위하야 이를주장함이며 인류덕량심의나타남에 기인하
 세계개조에 큰기틀과 시운에 순하응하며 아울러 나가기위하야 이를
 제출하야 일허킴이니 이는 하늘이 임의발기하 명하시며 시대의 큰
 형세이며 모든 인류가 한가지로생존하야 갖치살자는진리의 정당하
 발동이라 던하에 엇던사물이던지 이를위하야 저해하야막으며억제
 치못홀지라 (……)

위 예문을 살펴보면 대체로 원문의 한자는 발음에 맞추어 한글로 표기하는
 모습을 보이며, ‘吾等’, ‘我’ 등은 ‘우리’, ‘克明’은 ‘밝히다’ 등 의미로 풀어쓴
 경우를 볼 수 있다. ‘子孫萬代에 誥하야’의 경우 ‘자손만대에 전하다’로, ‘獨立
 國임과’는 ‘독립국됨과’, ‘大機運’은 ‘큰 기틀과 시운’, ‘天의 明命’은 ‘하늘이
 이미 밝게 명하였다’는 표현으로 문맥에 맞추어 적절히 변용한 것도 확인된
 다.

『대한독립혈전기』에서는 한문의 번역 외에도 영문을 다수 번역하였다.
 번역의 저본이 되는 영문 자료는 한국인이 영작한 것도 있으나, 제8장 ‘한국
 으로더빛쬐는광선’과 ‘합중국상의원의토론’과 같이 미국인이 작성한 영문을
 저본으로 번역된 경우도 확인된다. 영문의 번역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한국독립혈전기』 영어 번역 예23)

<p>MORE LIGHT FROM KOREA KOREA SEEMS TO SOME OBSERVERS to be punished for being Christian almost as much as for being patriotic, if not more. Such “demonstrations” as are reported of the natives consist in little more than a frank “Three Cheers for Independence!” But they are paid for with tortures and executions in forms that would almost seem to be especially calculated to heap ridicule upon the Christian articles of faith. Korea is apparently carrying on a revolution without arms, and with only the weapon of a “mimeograph” press; and suffers from a repression equaling the most approved Prussian or Turkish methods.</p>	<p>한구으로더빛쬐는광선 현금 방관자된 칙임으로 관찰하기에는 한 인 들이 예수교인과 애구자가됨을인하 야 형벌을 당함시오 달은 리유는 업는듯하 도다 한인들은 독립을 위하야 (만세)삼창하 는탓으로 불인정하 악형과 참살을당하니 그 형벌은 특별히 기독교덕의를 대표하 물건 (+자가)을 조소하느쓰스로 만히 베플 며 분명히 한인들은 무기가 업고 오직 일개등 사판으로 발행하느신문만 가지고 활동하 는디 한구은 덕구이나 터키와 동일한 학정과 압박밋해서 고초를 당하는도다</p>
<p><i>itory digest</i>의 기사</p>	<p>『대한독립혈전기』의 번역문</p>

원문과 대조하면 문맥이 정확히 번역되었음을 볼 수 있다(표 4). ‘some observers’은 ‘방관자가 된 책임으로 관찰하면’ 정도로, ‘light’는 ‘광선’, ‘Three Cheers for Independence’는 ‘만세삼창’으로 번역되는 등은 직역보다는 문맥에 맞춰 그 어감을 적절히 살린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같은 문어체 외에도 마지막에 수록된 ‘합중국상원의원의토론’의 경우 대화라는 점을 감안하여 구어체로 번역한 특징이 확인된다. ‘합중국상원의원의토론’은 필자가 원문을 확인하지 못하였기에, 『대한독립혈전기』에 제시된 번역문만 제시하도록 한다.

23) *itory digest*는 <https://onlinebooks.library.upenn.edu/webbin/serial?id=literarydigest>에서 제공하는 원문 이미지를 기반으로 제시한 것이다.

(일리노이즈주 상의원 맥코믹) 회장, 지금연설하시느 상의원은 말을 잠시
정지할수잇소

(의장) 예, 네부라스카주 상의원은 일리노이주상의원의 소청을 잠시 허락
하시겟소

(상의원노리쓰) 나는 허락호오

(상의원 맥코믹) 그 상의원은 이보고를 연설에 첨부하시겟소

(상의원노리쓰) 나는 여기대하야 반대치안소

(상의원맥코믹) 나는 그리하기를 소원호오

위 예문을 살펴보면 ()에 발화자를 기입하고, 각 인물별 발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즉, 『대한독립혈전기』는 국한문혼용 및 영어로 작성된 번역
대상물을 독자들에게 읽힐 수 있도록 문어체와 구어체, 문맥에 따른 적절한
가감을 번역에 반영하였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은 『대한독립혈전기』에 사용된 한글의 표기 방식
이다. 『대한독립혈전기』에서는 특정한 글자에 한하여 종성 표기가 따로 인쇄
되거나, ‘ㅅ’계 합용병서에서 ‘ㅅ’이 분리되어 나타나는 등의 표기 방식이
확인된다. 종성 표기가 분리되어 나타나는 경우는 ‘ㄱ’, ‘ㄴ’, ‘ㄷ’, ‘ㄹ’, ‘ㅂ’,
‘ㅅ’, ‘ㅇ’가 확인되는데, 이러한 현상이 출현하는 부분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표 5] 『대한독립혈전기』의 자음이 분리되어 인출된 예

구분	자음	자형이 분리된 표현의 예
종성 분리	ㄱ	한구ㄱ, 구ㄱ훈, 군구ㄱ주의, 구ㄱ치, 구ㄱ가, 불ㄱ은 피, 목로 ㄱ, 발ㄱ히, 썩ㄱ지못하랴
	ㄴ	아이리ㄴ드, 뷔ㄴ종희장, 홀스터ㄴ, 로레ㄴ, 래티ㄴ방언, 맥 케ㄴ시
	ㄷ	특별히 쓰르 인류에, 힘쓰르티이라, 그정형이 오리ㄷ스록 비참하 형편을, 필라데ㄷ피아, 쉬ㄷ스빅

	ㅁ	구ㄱ가덕 러ㅁ의의, 굿세ㅁ을, 보ㅁ철, 기반을 쓰ㅁ으로
	ㅂ	널ㅂ은, 헝기쉬ㅂ겟지만은, 간을내여써ㅂ어도, 슬ㅂ히울며, 살ㅂ히니, 베ㅂ홀겟다, 꾸ㅂ으러진, 하ㅂ중국
	ㅅ	쓰ㅅ, 이ㅅ느, 써ㅅ써ㅅ헝고, 안케ㅅ나뇨, 쏘ㅅ찾느딕, 쏘ㅅ겨가, 비ㅅ방울, 써ㅅ으니
	ㅇ	새ㅇ광, 동새ㅇ, 날짐새ㅇ, 회새ㅇ, 새ㅇ존, 죠ㅇ파, 월보ㅇ, 탄새ㅇ, 원도ㅇ
합용병서 분리	ㅅ	ㅅ배앗겟으며, ㅅ도흔, 이로ㅅ서, 탐홀ㅅ분이오, ㅅ발니, 정 성ㅅ것, ㅅ질너, ㅅ궤여, ㅅ소고

표를 살펴보면 한자어, 고유어, 외국어의 전사 표기 등 다양한 부분에서 중성 및 합용병서의 ‘ㅅ’이 분리된 현상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표 5). 이러한 중성 및 합용병서 분리 표기는 특정 자형에서 주로 확인되는 경향이 많은데 한 예로 ‘국’자를 ‘구ㄱ’으로 표기한 사례나 ‘쏘’를 ‘ㅅ도’로 표기한 사례를 들 수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당시 미주 한인 사회에 통용되던 표기법이이었을까?

이에 대해서는 『대한독립혈전기』의 편찬 목적과 본문 내 다른 어휘에서 출현하는 표기 방식을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3장에서 살펴보았듯, 『대한독립혈전기』는 세계 각지에 있는 한인들에게 읽히게 할 목적으로 간행된 문헌이다. 즉, 미주 사회에만 통용되는 것이 아닌 세계 각지의 한인들이 읽고 이해할만한 수준으로 간행되어야 한다. 또한 『대한독립혈전기』의 본문 내에서 ‘대한민국’, ‘갈스룩’, ‘빈주먹’, ‘힘세ㄴ팔’, ‘동포’, ‘생존권’, ‘헝겟다’, ‘불법’ 등 중성이 분리되지 않은 표기가 확인되며, ‘ㅅ’ 합용병서에서 ‘ㅅ’이 다른 자음과 결합된 ‘슨코’, ‘쑷코’, ‘찌ㄱ느’, ‘찌저발이미’ 등의 표기가 확인된다.

『대한독립혈전기』 본문 내에서 통일되지 않은 표기 방식이나 문헌의 편찬 목적 및 독자로 삼은 대상을 감안하면 본문에서 보이는 중성이 분리되거나 합용병서의 ‘ㅅ’이 분리되는 현상은 활자가 부족하여 임시방편으로 인출한

결과라 여겨진다. 알려진 바와 같이 태평양잡지사에서는 애초에 『태평양잡지』를 영문으로 발행하려 하였으나, 재정적 문제로 인해 국문으로 발행하였다.²⁴⁾ 즉, 창간 초기부터 재정적 어려움을 겪던 상태임을 알 수 있다.

태평양잡지사에서 발간하던 『태평양잡지』는 1913년부터 1930년까지 『태평양잡지』를 발행하여 하와이, 미국 지역, 쿠바 및 멕시코, 중국, 영국, 독일 등지에 배부되었다. 현재는 23개호의 『태평양잡지』가 확인되어 국내에 영인된 상태이다.²⁵⁾ 필자는 태평양잡지사가 일본에서 활자를 구입하기 이전에 인출된 1913년 11월호 『태평양잡지』와 일본에서 활자를 구입하여 인출한 1914년 2월호 『태평양잡지』, 『대한독립혈전기』 발간 이후 발행된 1923년 3월호 『태평양잡지』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1913년 11월호는 대개 17행 40자이며, 종성의 분리 현상 비중이 매우 적고, ‘ㅅ’ 합용병서에서 ‘ㅅ’이 분리된 현상을 확인할 수 없었다. 1914년 2월호에서는 본문은 이전과 같은 17행 40자이나, 인용문은 행수는 20행이며, 자수는 최대 56자까지 제시되고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1913년 11월호에서 인용문을 제시할 때에는 동일한 활자를 사용한 반면, 1914년 2월호에서 인용문을 제시할 때에는 다른 활자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24)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태평양잡지」: 이승만은 하와이 각 섬을 순회하며 강연과 모금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모금 성적이 부진해 인쇄기 구입 및 운영 비용을 충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승만은 영문잡지 발간을 중단하고 차선책으로 국문잡지 발간으로 계획을 변경하였다. 이런 과정을 거쳐 『태평양잡지』는 마침내 1913년 9월 1일 월간 국문잡지로 발행하게 되었다.

25) 국가보훈처, 『태평양잡지1』, 국가보훈처, 2013ㄱ; 국가보훈처, 『태평양잡지2』, 국가보훈처, 2013ㄴ. 이에 따르면 1913년 11월호 1건, 1914년 1월호, 2월호, 3월호, 4월호, 6월호 등 5건, 1923년 3월호, 7월호, 8월호, 9월호 등 4건, 1924년 4월호, 7월호, 10월호 등 3건, 1925년 7월호, 8월호, 9월호, 10월호 등 4건, 1930년 3월호, 4월호, 5월호, 7월호, 9월호, 10월호 등 6건으로 전체 23개호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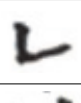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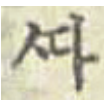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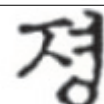


<p>1913년 11월호 인용문</p> <p>태평양잡지</p> <p>를이 일마웃그립에 의했스나 유근히 형 의를 품는자 일자 안후니 의을 사모 노자는 항상 원수같은것이 고금에 민 쳐곳은 리쳐도 앨리스와 본지가 부린 천부의 잇 노로 할자예를변화해서고 그수코를 감스모 말로 처하구었다니 씨의 회담이 왔는지 그성미가 어이호것을 보이기 위 하가 그 회담에 이강만 씀아 자에 여등 장노니 후의스외</p> <p>반갑자오며 귀국 코회회박 소견에 걸 너는요선교인들을 위하야 이단처도 을기회가 배비 온것은 내가 피성예 에 일 부바비어는임이되다 이밖에 대우령에서 나를 미국 공소 로 탄압하 천국에 가배워것을 이일로</p> <p>멕시코공화국 의스류과 외치온과 멕시코 각처에 서오는 열보를 본관덕 멕시코에 살려원이 대단히 급할중유에 잇도다 후어는 다시 대우령이 되고자 하야 운동장인덕 씨가멕시코에서는 세력이 장크야 미국 비쳐하는 단과들과 합동 여가지고 국권을 다시 잡으려하</p> <p>임연과 일문 정류에서 반의하는코 로모가 배워스스나 조강도 후회 가일코 도무히 이일에는 지금도 열 히 이익도 흥경이오 이보다 더동자 이되다 운문</p> <p>九月二十六日 埃 앨리스 미상</p>	<p>1914년 2월호 인용문</p> <p>태평양잡지</p> <p>를이 일마웃그립에 의했스나 유근히 형 의를 품는자 일자 안후니 의을 사모 노자는 항상 원수같은것이 고금에 민 쳐곳은 리쳐도 앨리스와 본지가 부린 천부의 잇 노로 할자예를변화해서고 그수코를 감스모 말로 처하구었다니 씨의 회담이 왔는지 그성미가 어이호것을 보이기 위 하가 그 회담에 이강만 씀아 자에 여등 장노니 후의스외</p> <p>반갑자오며 귀국 코회회박 소견에 걸 너는요선교인들을 위하야 이단처도 을기회가 배비 온것은 내가 피성예 에 일 부바비어는임이되다 이밖에 대우령에서 나를 미국 공소 로 탄압하 천국에 가배워것을 이일로</p> <p>멕시코공화국 의스류과 외치온과 멕시코 각처에 서오는 열보를 본관덕 멕시코에 살려원이 대단히 급할중유에 잇도다 후어는 다시 대우령이 되고자 하야 운동장인덕 씨가멕시코에서는 세력이 장크야 미국 비쳐하는 단과들과 합동 여가지고 국권을 다시 잡으려하</p> <p>임연과 일문 정류에서 반의하는코 로모가 배워스스나 조강도 후회 가일코 도무히 이일에는 지금도 열 히 이익도 흥경이오 이보다 더동자 이되다 운문</p> <p>九月二十六日 埃 앨리스 미상</p>
-------------------------------------------------------------------------------------------------------------------------------------------------------------------------------------------------------------------------------------------------------------------------------------------------------------------------------------------------------------------------------------------------------------------------------------------------------------------------------------------------------------------------------------------------------------------------------------------------------------------------------------------------------------------------------------------------------------------	------------------------------------------------------------------------------------------------------------------------------------------------------------------------------------------------------------------------------------------------------------------------------------------------------------------------------------------------------------------------------------------------------------------------------------------------------------------------------------------------------------------------------------------------------------------------------------------------------------------------------------------------------------------------------------------------------------------

[그림 4] 활자 구입 전후 『태평양잡지』의 인용문 비교26)

1914년 2월호의 인용문부터 사용된 해당 활자는 발행 시점을 감안하였을 때, 일본에서 구입한 5호 활자²⁷⁾로 여겨진다. 1914년 2월호 인용문에 사용된 활자를 유심히 살펴보면 ‘ㄱ’, ‘ㄴ’, ‘ㅇ’ 등 중성이 분리되어 인출되기도 하였다(그림 4). 이는 재정적 상황이 어려워 초기부터 인쇄에 필요한 자형을 모두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1914년 2월호의 인용문에 한하여 중성이 분리되어 인출된 경우, 그 자형의 특성이 『대한독립협전기』와 동일함을 알 수 있다.

26) 본고에서 사용한 『태평양잡지』의 이미지는 모두 국가보훈처(2013ㄱ·2013ㄴ)에서 인용한 것이다.

27) 최기영(2013: 10): 한인감리교회의 인쇄시설을 이용하다가 1914년 2월호부터는 일본에 주문한 5호 활자로 인쇄하였다.

기존 태평양잡지사 활자	1914년 구입 5호 활자	대한독립혈전기에 사용된 활자
		
		
		
		
		

[그림 5] 1914년 전후 태평양잡지사 발간물의 활자 자형 예

그림 5에서 기존에 낱자로 인출된 ‘ㄱ’은 1914년 인용문부터 나타나는 활자에 비해 내려오는 획이 곧은 경향이 나타난다(그림 5). ‘ㅇ’의 경우 모두 꼭지가 보이거나 1914년 활자 구입 이전에 사용하던 활자는 세로가 조금 더 긴 모습을 보인다. ‘ㄴ’을 살펴보면 기존 활자와 1914년 구입한 활자가 쉽게 구분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특히 기존 활자는 ‘ㄴ’이 ‘v’ 또는 체크(√)에 가까울 정도로 기울어진 반면, 1914년 2월 인용문에 사용된 활자는 각도가 급하지 않고, 비교적 아래 부분에서 획이 끝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대한독립혈전기』에서도 동일하다. 또, ‘ㅅ’나 ‘정’과 같이 획수가 많은 글자 자형에서도 『대한독립혈전기』에 사용된 활자는 1914년 구입된 활자와 동일한 모습을 보인다. 예를 들어 ‘ㅅ’에서 모음 ‘ㅏ’의 가로획이 1914년 구입

이전 사용된 활자의 경우 가운데에 위치하였으며, ‘ㅈ’의 ‘ㅅ’은 좌우획의 길이가 비슷한 반면, 1914년 구입된 활자와 『대한독립혈전기』에 사용된 활자는 ‘ㅈ’의 가로획이 다소 아래에 위치하며, ‘ㅅ’의 좌측획이 우측획에 비해 긴 특성이 닮았다. ‘정’은 1914년 이전 사용된 활자에 비해 1914년 구입된 활자와 『대한독립혈전기』의 종성 ‘ㅇ’의 꼭지가 보다 길며, 상단이 좌측으로 살짝 빠져있음이 확인된다.

즉, 『대한독립혈전기』에서 사용된 활자는 1914년 태평양잡지사가 일본에서 구입한 5호활자로 볼 수 있다. 『대한독립혈전기』는 1914년 발간된 『태평양잡지』보다 ‘ㅅ’이 분리되어 인출되거나 종성이 분리되는 현상의 비중이 높은 편인데, 이는 지속적인 사용으로 인하여 마모된 활자 등의 사유와 1910년대 초부터 겪던 재정적 어려움으로 새로운 활자를 더 갖추 수 없던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현상으로 여겨진다. 관점을 달리하면 활자마저 쉽게 구비할 수 없던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 독립운동에 관한 기록을 수합하여 발간한 것이 『대한독립혈전기』라고 할 수 있다.

V. 결론

본고에서는 하와이 한인기독학원에서 발행한 『大韓獨立血戰記』의 구성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해당 문헌은 일제강점기 해외에 소재한 한민족의 발행물 중 하나로, 한국의 독립 운동에 대한 기록을 다양한 방식으로 수합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문헌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해제와 원문이 제시되는 정도에서 그쳤을 뿐, 『대한독립혈전기』를 연구 대상으로 포함하는 경우는 보기 어렵다. 이에 본고에서는 먼저 서지사항과 소장처를 정리하고, 편찬 목적을 살펴본 뒤 본문의 구성과 특징 등을 밝히고자 하였다.

그 결과 하와이 한인기독학원에서 발행한 『대한독립혈전기』는 현재 국내 2건, 국외 3건의 소장처가 확인되며 모두 같은 판본으로 여겨진다. 국내의

경우 국회도서관, 독립기념관에 각 1건이 소장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국사편찬위원회 소장본은 복사본임을 언급하였다. 국외의 경우 하와이대학, 시카고대학, 컬럼비아대학에 소장되어 있어 모두 미국에 소장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판권지를 분석하여 『대한독립혈전기』가 미주 한인사회에서 발행한 문헌 중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쓰인 첫 문헌이라는 점을 소개하고, ‘대한민국’ 국호가 빠른 시일 내에 미주 한인 사회에서 사용하던 신문과 공문서에 정착하게 되었음을 소개하였다.

편찬 목적을 살펴보기 위해 발행 주체인 한인기독학원과 인쇄체인 태평양 잡지사, 편찬자 김영우의 이력 및 공통점을 살펴보았다. 김영우에 대한 정보는 하와이대학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기타 활동 내역을 참조하였다. 살펴본 결과, 『대한독립혈전기』의 발간은 이승만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서문을 통해 본 문헌이 이승만을 주축으로 세계 각지에 소재한 한민족의 독립 의지를 불러일으키고 유지시키기 위한 목적 아래 편찬되었다고 보았다.

4장에서는 『대한독립혈전기』의 구성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사진과 각 장의 내용은 편찬자가 체계적으로 분류하였다고 보았으며, 본문 내 삽입한 사진은 하와이 독립운동 관련 사진, 국내 독립운동 관련 사진, 미국에서의 독립운동 관련 사진 순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문은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프랑스 등 다양한 국가에서 발행된 문헌을 수합하여 순한글로 번역하였는데, 독립선언서, 미국 한인의 활동, 국내외 독립운동 소식, 파리강화회의에 제출한 한국독립청원서 등 각 장마다 주제가 일정하게 부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제1장에서 제시하는 3종의 독립선언문은 31운동 이후 한글로 번역된 첫 번역문이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대한독립혈전기』는 원문과 번역문을 검토하였을 때, 단순히 1:1 대응의 번역을 수행한 것이 아닌, 독자의 이해를 감안한 번역이 이루어졌으며, 원문의 특성을 반영하여 문어체, 구어체의 구분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한독립혈전기』의 본문에서 종성과 ‘ㅅ’합용병서에서 ‘ㅅ’이 분리되어 인출되는 현상과 『대한독립혈전기』 인출에 사용된 활자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대한독립혈전기』는 1914년 태평양잡지사가 구입한 활자로 인출되었으며, 당시 재정상 문제로 인해 필요한 모든 자형의 활자를 갖추지 못한 채 발행을 유지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종성과 합용병서에서 ‘ㅅ’이 분리되어 인출된 현상은 필요한 활자가 부족하여 임시 방편적 측면에서 사용한 방법이라 파악하였다. 이상 살펴보았을 때, 『대한독립혈전기』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던 와중에도 대한민국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독립의 의지를 세계 각지의 한민족에게 보이기 위한 의도로 편찬된 문헌이다. 차후 세계 각지에서 발행한 한민족의 문헌을 검토하고, 문헌과 독립운동의 연계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원전(발행연도순, 이하 동일)

- 박은식, 『韓國痛史』, 하와이 권업동맹단, 1917.
김영우, 『대한독립혈전기』, 하와이 한인기독교학원, 1919.
대한인국민회 북미지방총회, 『公文式』, 1920.
대한인국민회, 『新韓國報』(1910년 8월 9일자; 1910년 11월 29일자; 1919년 9월 18일자).
대한인국민회 하와이지방총회, 『國民報』(1913년 10월 15일자).

자료집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자료-臨政篇 II』, 국사편찬위원회, 1971.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자료-臨政篇 IV』, 국사편찬위원회, 1974.
국가보훈처, 『태평양잡지1』, 국가보훈처, 2013ㄱ.
국가보훈처, 『태평양잡지2』, 국가보훈처, 2013ㄴ.

논문

- 홍선표, 「徐載弼의 獨立運動(1919-1922)研究」, 『한국독립운동사연구』 7,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3, 187-244쪽.
이종근, 「민족계몽과 독립운동의 선구자 근당 임기반 재조명」, 『도산학연구』 7, 도산학회, 2001, 229-248쪽.
김정숙, 「민족 수난기 미주지역 한인 출판에 관한 시론적 연구」, 『출판연구』 14, 한국출판연구소, 2002, 179-195쪽.
홍윤정, 「盧伯麟의 美國에서의 獨立運動(1916-1921)」, 『백산학보』 70, 백산학회, 2004, 1089-1132쪽.
Brandon Palmer, 「하와이의 한인과 미국인 간의 관계(1903-1945)」,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44,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연구소, 2005, 169-201쪽.
조민경, 「하와이체류시기 이승만의 교육구국활동」,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황민호, 「박동완의 국내민족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3, 독립기념관 한국 독립운동연구소, 2009, 305-345쪽.
- 김도형, 「하와이 대조선독립단의 조직과 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7, 독립 기념관 한국독립운동연구소, 2010, 209-263쪽.
- 박혜수, 「이승만과 하와이 감리교회와의 관계」, 『신학논단』 68, 연세대학교 신과 대학, 2012, 93-120쪽.
- 이명화, 「재미 실업가 김종립의 생애와 독립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3,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연구소, 2012, 113-168쪽.
- 최기영, 『『태평양잡지』』, 『태평양잡지1』, 국가보훈처, 2013, 9-23쪽.
- 정을경, 「독립운동가 고석주의 독립활동」, 『충청학과 충청문학』, 충청남도역사 문화연구원, 2019, 225-239쪽.
- 김명섭·박재원, 「제1차 세계대전 전후 하와이 대한인 독립운동: 이승만과 박용만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61-4, 한국국제정치학회, 2021, 165-202 쪽.
- 조규태, 「대조선국민군단의 조직과 활동: 주도세력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09,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연구소, 2021, 37-78쪽.
- 박재원·김명섭, 「하와이 대한인 독립운동기지 형성의 정치학, 1903-1909」, 『한국 정치연구』 31-1,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22, 117-146쪽.
- 조규태, 「하와이 이주 한인 정원명의 민족적 활동과 면모(1904-1942)」, 『승실사 학』 48, 승실사학회, 2022, 71-92쪽.
- 최희영, 「1923년 하와이한인학생방문단의 인천 방문 주요 내용과 의의」, 『인천 학연구』 36,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22, 37-69쪽.
- 조규태, 「하와이 이주민 안원규의 사회·경제적 삶과 민족적 활동(1903-1947)」,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15,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연구소, 2023, 39-81쪽.

사이트(가나다순)

국회도서관(<https://www.nanet.go.kr/main.do>).

온라인책도서관(<https://onlinebooks.library.upenn.edu>).

하와이대학(<https://hilo.hawaii.edu>).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s://encykorea.aks.ac.kr/>).

Abstract

THE COMPOSITION AND CHARACTERISTICS OF
DAEHAN-DONGNIP-HYEOLJEON-GI

PARK CHEOLMIN (PARK, CHEOL MIN)

Daehan-dongnip-hyeoljeon-gi (대한독립혈전기; 大韓獨立血戰記; The Epic Battle for Korean Independence) investigated in this article is the first literature in which the country name of Daehan-min-guk (대한민국; 大韓民國) was used among publications printed by Koreans in America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colonial rule. Domestic and overseas institutions holding this literature have been identified and Korean liberation movement-related records, which were collected from all over the world by Koreans revolving around Syngman Rhee and were translated into Korean, are classified and presented in a fixed system. Translations in *Daehan-dongnip-hyeoljeon-gi* were translated from original texts of Korean-Chinese character mixed script or English script, and their translation was carried out in consideration of readers' understanding as well as the characteristics of original texts. This literature is significant in that it is a book published for the sake of national liberation despite the then difficult financial conditions.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the linkage between literature published by overseas Koreans and the national liberation movement.

Key Words : National liberation movement, Overseas Koreans, Daehan-min-guk, Kim Young-wo, Korean Christian Institute, The Korean Pacific Magazine, Hawaii

부록 1. 『대한독립혈전기』 본문의 구성 세부 내용

순 번	장 순 서	절 제목	수록 페이지	주요 내용
1	1	대한독립선언서	1-4	(한국)3·1운동 독립선언서의 번역문
2		대한공화국립시현장	4-5	(중국)대한민국임시현장 선포문의 번역문
3		맹서훈선언서	5	(중국)대한민국임시현장 선서문의 번역문
4		六대정강	5	(중국)대한민국임시현장 政綱의 번역문
5		도선청년독립단선언서	6-9	(일본)2·8독립선언서의 번역문
6		결의문	9	(일본)2·8독립선언서 결의문의 번역문
7		대한국의회선언서	10-13	(러시아)대한국민의회 독립선언서 번역문
8		대한국의회결의안	13	(러시아)대한국민의회 독립선언서 결의문의 번역문
9		대한독립가	13-14	독립운동 시 부른 독립가(목포지역 등에서 부름)
10		기도문	14	(미국)서재필 박사 부인의 기도문
11		대한독립의용군분계표	14	1919년 3월 1일부터 10일까지 독립운동에 참여한 인원과 체포자 및 사상자의 수치.

12	2	필라델피아총대표회	15-20	(미국)1919년 4월 14일-16일 개최된 한인총대표회의의 개최 배경 및 경과 등 기술
13		미국인의동경	20-21	
14		미국을향하야원경	22-24	(미국)INDEPENDENCE FOR KOREA(한국의 독립) 중 「AN APPEAL TO AMERICA」의 번역문
15		가장지각잇는일인들 의게	24-26	(미국)INDEPENDENCE FOR KOREA 중 「TO THE THINKING PEOPLE OF JAPAN」의 번역문
16		필라델피아총대표회 종지	27-28	(미국)INDEPENDENCE FOR KOREA 중 「AIMS AND ASPIRATIONS OF THE KOREANS 」의 번역문
17	3	국민대회취지서	28-29	(한국)한성정부 국민대회취지서의 번 역문
18		결의안	29	(한국)한성정부 국민대회취지서 결의 사항의 번역문
19		국민대회이서선포훈 약법	30	(한국)한성정부 국민대회취지서 조항 의 번역문
20	4	독립군활동중심디	30-31	1919년 3월 1일부터 5일까지 각 지역 별 독립운동에 참여한 인원 수치
21	5	던보	32-50	한국, 중국, 미국, 일본, 프랑스 등에서 전달된 소식의 번역문
22	6	대한공화국청원서	51-59	1919년 파리강화회에 김규식이 제출 한 한국독립청원서 영문의 번역문
23		기억안	59-76	THE CLAIM OF THE KOREAN PEOPLE AND NATION(한국독립청 원서) 중 「MEMORANDUM」의 번역 문

24	7	내디독립군활동소식	76-94	3·1운동 이후 한국 소식을 수습하여 정리한 내용
25		쓰거운피가잇는자여	94	『독립신문』 제6호 기사
26		영구헌혈전을개시	95	『독립신문』 제8호 기사
27		오래고도면계획	95-96	『독립신문』 제28호 기사
28		감옥에서온글	96-98	(러시아)『한인신보』 기사
29		대한민국민회첨존서	99-100	(일본)1919년 5월 11일 일본의 한국인 유학생 일동이 보낸 편지.
30		축대한독립만세	100-104	(한국)1919년 5월 10일 한국 세브란스 의술전문학교 졸업생 아무개가 신한 민보사에 보낸 편지
31	8	김윤식리용직의청원서	104-106	김윤식, 리용직이 조선총독 하세가와 요시미치에게 보내는 청원서
32		한국의독립운동	107-111	(중국)1919년 4월 22일 상해에서 발간된 영자신문의 번역본
33		한국의비극	111-115	(중국)1919년 3월 22일 상해에서 발간된 영자신문의 번역본
34		한국을위하야청원	115	(미국)버지니아주에서 미국인이 청원한 내용
35		한국을위하슈카고미이미교회활동	116	(미국)1919년 5월 19일 시카고목사회에서 한국의 독립을 위해 청원하기로 선포하는 글의 번역문
36		한국으로더빛쬐는광선	117-124	(미국)literary digest 61-9호(1919년 5월 31일 발간) 35쪽 기사의 번역문
37		한국의데비비극	125-128	(중국)1919년 3월 22일 만주 봉천지역에서 상해 영자신문에 특별통신으로 보낸 글의 번역문
38		한국은독립을괴어히성립홀일	128-129	하와이 『Star-Bulletin』 1919년 6월 18일 기사 번역문

39	9	대통령의선언서	130-1 32	이승만이 지은 대한민국 임시대통령 선언서의 번역문
40		임시정부내각원	132	임시정부 내각의 총재 및 총장 명단
41		평정관	132-1 33	임시정부 評定官과 파리강화회에 대표로 참여할 인물의 명단
42		대한민국임시의정원법	133-1 37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법령
43	10	합중국상원의원의토론	137-1 50	(미국) 상원의회의 1919년 7월 15일 회의록 중 네브라스카주 George W. Norris가 거론한 한국 관련 내용의 번역문

부록 II. 『대한독립혈전기』에 수록된 독립선언서 번역 전문

大韓獨立宣言書 대한독립선언서

우리는 이에 우리 조선의 독립국됨과 조선사람의 자유민됨을 선포하노라
이로써 세계만국에고하야 인류평등의 큰쓰사를 발키며 이로써 자손만대
에 던하야 민족자존의 정권을 영구히 잇게하노라 반만년력사의권세와 위엄
을 의지하야 이를 선언함이며 二千만민족의 성력과 충성을합하야 이를 반포
하야 발킴이며 민족의 항구 여일흔 자유발전을위하야 이를 주장함이며 인류
덕량심의나타남에 괴인흔 세계개조에 큰기틀과 시운에 순히응하야 아울러
나가기위하야 이를제출하야 일허킴이니 이는 하늘이 임의발기하 명하시며
시대의 큰 형세이며 모든 인류가 한가지로생존하야 갖치살자는진리의 정당
흔발동이라 텃하에 었던사물이던지 이를위하야 저해하야막으며억제치못할
지라

넷시대의 유물인침략주의와 강권주의의회생을 지어 력사잇게너려온지
여러천년에 처음으로다른민족의게 절제的高통을당하진 이제+년을지나지
라 우리 새○존권의 박탈함과 저상됨이무릇얼마며 심령상발전의 장애됨이
무릇얼마며 민족덕존귀하엿화의 희손됨이무릇얼마며 신예와 독창으로써
세계문화의큰풍조를 싸라보급하야 리익될괴회의인연을 일함은무릇얼마
노

슬프다 네전억울함을 드러너피고자하면 시하의고통을 물너치고버스라면
장리협박의위험함을 배여업시하려하면 민족의량심과 구가가덕러의의 압
축초잔됨을 흥분하피라하면 각개인자격의발달을 일우고저하면 가련하 자녀
들의게 고통스럽고 슈치되는직산을끼쳐주지아니하려하면 자자손손의 영구완
전흔 경사와 행복을지도하야오라하면 데일큰급무가 민족덕독립을 확실케
함이니 二千萬각개인마다 방촌의칼을품고 인류의통성과 시대의량심이 정의

의군사와인도의간과로써 (호원)호위하며 구원하는오날우리는 나가취히미
엇던국세口을써가지못하랴 물너지지오미 무슨쓰스를 퍼지못하랴

병자수호조약이후 시시세세로 금석조약조약을 먹었다하야 일본의무신함을
죄히려아니하노라 학자는 강단에서 정치가는실제에서 우리조요에 세
업을식민지로보고 우리문명민족을 토요몽매한 사람치대우하야 한갓
정복자의과함을 탐할수분이오 우리의영원한 사회치초와 탁월한민족의심
리를 무시한다하야 일본의적은의를 칙히려아니하노라 자귀를계칙하며 장
려히기에 급한우리는 저것의원수된허물을결을치못하노라

현질을지으며 궁구히기에 급한우리는 전에오래된 증치와 판단을 결을치
못하노라 오날우리의소임은자귀의 건설이 잇슬수분이오 결코 남을헐며 파
괴함에 잇지아니하노라 엄숙한 량심에명령으로써 자귀집의 새운명을 개척
함이오 결코 네전원수의일시덕감정으로 남을미워스치며 배척함이아니로다
넷사상네세력의미인 일본정치가의 공명덕희새이된자 면치못하고 사리의
합하지못한 오착된상태를 선허게곳치며바른대로부드러 자연되고 합의하바
른길과 원측으로도라가게함이로다 당초에 민족덕요구로서 나오지아니한두
나라합병의결과가 필경은 고식덕위압과 차별덕불평과 총계슈사상허식밋헤
서 리해상반한 두민족사이에 영원히화동할수업는 원수의구령을갈사록 더
옥심히게히오는 오날날 실상된사적을보아라 용감으로써 네전오해를 바로
잡으며 진정하 리해와 동정에기본하구덕새판국을 타파하야 열어노음이
피차간에 화를떨니하고 복을 부르는 곳은길을 발키알것 아닌가 쏘 분을먹음
고 원한을가진 二千萬백성을 위력으로써 구속함은 다만 동양의 영구한평화
를 막는소위가 안닐수분안이라 일로인하야 동양안위에주초되는 四억만지
나인의 일본의대하위태한 두려움과 의심을 갈스록더히게하야 그결과로 동
양전국이 한가지로써구러지고 한가지로망하는비참한 운명을 불너일히킴이
분명하니 오날우리사람에 조선독립은 조선사람으로하여금 정당하새광의
영화를 일우게하는동시에 일본으로하여금 요사한길에서나와 동양을 지당
하며 유지하는자의 중히칙임을 완전케하는것이며 지나로 하여금 쏘꾸는자

리에도 면치못하는 평안치못한 두려움으로서 버서져나오게하는 것이며 또 동양평화로중요한부분을삼는 세계평화 인류행복에 필요단계가 되게하는 것이라 엇지구구한 감정문데리오

아아 새턴디가 안전을 열엇도다 위력의시대가 가고 도리의시대가 왔도다 전세기에 령마장양된 인도덕 정신이 바야흐로 신문명 서기빛출 인류력사에 던져빚치기시작하도다 새봄이 세계에오미 만물의회춘됨과 소재움을 직촉하노도다 어은어름찬눈에호움을닷치고 담오렸던것이 더한새에 형세라한 면화국의바람은란한빛에기믹을 썰치고뎡도 한새에 세력이니 턴디에도라운 운기를 당하고 세계변한풍조를탄 우리사람은 아모 주저할것업스며 아모기 탄할것업도다우리의고유한 자유권을 호위하며완전케하야 새광의 질김을 배불니누릴것이며 우리의자족한 홀로 내인힘을분발하며 썰쳐봄이 가득한 큰세에 민족덕말은빛출매질지로다

우리가 이에 분발히일허났도다 량심이우리과치잇스며 진리가 우리와 알을너나가는도다 남녀로유업시 음울한넋곳으로서 활발히너나와서 만휘 중상으로더브러 혼과··한 부활을 일우게되도다千百조 신령이 우리를음우하며 온세계기운이 우리무리를외호하느니 착수가곳성공이라 다만 압길에 광명으로스발니짜라갈진더